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튠튼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별간자전거 55 튠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름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재)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첫회)	00 주말특별기획 (마마) (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5 바른말 고운말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 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재)	00 SBS 12 뉴스 30 닥터385 35 세상발견 유레카
1 30 뉴스특급	0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특집 (아시아의 별들 인천에서 빛나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MBC 2014 인천 K-POP 콘서트	35 한국의 맛 50 SBS 뉴스
2 40 직언직설	10 스카우트(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55 정몽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유후와 친구들(재) 55 TV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킴지 아하!동행탐험대	10 현대인의 몸예 대한 보고서(재)
4 55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튠튼 생활 체조(재)	25 마법 천자문 55 비타민(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00 최강 탑플레이트 30 우리끼리 탐구 생활
5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특집(즐거워라 인천)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50 일일 드라마 (배우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2014 인천아시아게임 기획 방송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숨터	0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0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0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해피 투게더	15 별바라기	15 자기야
11 20 카톡쇼 S ①:30 내조의 여왕(재)	50 네트워크 무한특선 이한철의 울긋유지 ①:40 생활의 발견	30 2014 인천 아시아 게임 특집 (나는 국가대표다)	35 MBC 뉴스 24 55 우리가락 우리문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다큐로 만나는 세계 베스트
12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35 따개비부	13:50 뛰뛰 뱅뱅 울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9:40 부모	14:00 시계마을 타기톡	17:30 로보가 풀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7:15 곤(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곤
07:30 책과 땅(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19:30 EBS 뉴스
07:45 로보가 풀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5:15 어린 왕자	19:50 달라졌어(재)
08:00 땀뽀롱 유치원	12:10 연중기획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역사채널e	15:45 오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탐사자니아)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10 부모공정(재)	16:00 땀뽀롱 유치원	21:30 한국기행 (황금마을 기행)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40 내 이름은 펑키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6:35 윈디 불즈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사)	11:40 박범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한국지리)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5 " (수학 I B형)
02:30 " (영어-듣기)	14:00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사)	14:00 " (물리 II)
04:10 " (과학)	14:50 " (화학 II)
05:00 " (한국사(해))	15:40 " (생명과학 II)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지구과학 II)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7:20 " (사회문화)
07:30 2014 포스 (문학 II)	18:10 " (경제)
08:20 수능특강 light(영어-독해)(재)	19:00 " (영어)
09:10 " (영어-듣기)(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수학 B형)
10:50 2013 포스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2)
07:30 실용관찰 비법 노트 (5-2)	15:50 " (과학 4-2)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 (과학 5-2)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6:50 " (과학 6-2)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2)(재)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역사(해))
09:50 " (영어 1)	18:40 " (사회 3)
10:30 " (도덕 2)	19:20 필독 중학 한국사(재)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 특강 (영어 2)
11:50 " (영어 2)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 풀이 (사회1-2)	21:40 한국기행 (과학 3-2)
13:10 " (과학1-2)	22:00 등급 상승 (과학 4-2)
13:50 " (과학2-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주제별)
14:30 " (역사 1-2)	23:20 중학e포스 영어독해(유형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음 8월 25일 壬辰)

子	36년생 복잡다단하여 장고를 거듭하리라. 48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60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접근하고 있다. 72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4년생 치밀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04	午	42년생 열정적으로 노력 한다면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54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66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78년생 급한 것부터 조처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 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10
丑	37년생 과정에서 돌발적인 장애물이 보인다. 49년생 즉시 이취해야겠다. 61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할 수 있어야 한다. 73년생 직함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85년생 공강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3, 31	未	43년생 안배를 잘 한다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다. 55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67년생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79년생 원래 자진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29
寅	38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50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62년생 식상함에 파문해서는 아니 되겠다. 74년생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4, 44	申	44년생 독특한 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56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에워싸고 있다. 68년생 부수적인 것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80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행운의 숫자 : 62, 12
卯	39년생 기교가 수의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51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단편적인 결과에 이른다. 63년생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형상이다. 75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1, 83	酉	45년생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57년생 다각도로 여러 번 검토해보지 않으면 허점이 생긴다. 69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모습이다. 81년생 중요한 시기에 맞춰야 할 중차대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2, 93
辰	40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백 배 나은 것이다. 64년생 모나지 않고 등글게 처리하라. 76년생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60, 19	戌	46년생 보면서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58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70년생 자신이 없다면 행하지 말라. 82년생 숨어 있는 바를 찾게 되는 희한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5, 52
巳	41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53년생 미치는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65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1, 07	亥	47년생 뻔히 알면서도 우려하였던 형편에 이르게 할 필요는 없다. 59년생 양호한 구도는 자주 나타나지 않음을 명심하라. 71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3년생 전방위적인 대처가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53,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내 안의 깊은 감정 포크 록에 담았죠”

윤도현, 솔로 미니앨범 발표 ... 내달 첫 단독 콘서트

“제 안에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저의 시작도 포크였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짙은 곡을 발표하고 싶었죠. 음악적으로 포크와 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면서 가사의 힘이 큰 장르죠.”

‘로커’ 윤도현이 이번에는 포크 음악을 들고 돌아왔다. 소리는 담백해졌지만 감성은 더 깊어졌다. 탄탄한 보컬은 여전히지만 밴드 YB의 음악보다 대중적인 감성이 짙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공연장 예스24무브홀에서 열린 솔로 미니앨범 ‘노래하는 윤도현’ 발매 및 소극장 공연 기념 기자회견회에서 윤도현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앨범 제목이 내 사인 문구다. 과거 만들 당시에는 더 멋있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만큼 내게 어울리는 구절이 없더라”며 “앨범 재킷을 내 사진으로만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발매된 미니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은 그가 2009년 ‘하모니’ 이후 5년만에 발표하는 솔로 미니앨범이다. 밴드 YB의 보컬로 한국을 대표하는 록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그가 어쿠스틱 사운드 중심인 감성적인 노래를 선보인다. 록음악 팬들이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는 진행자 김재홍의 지적에 윤도현은 “가을에는 시끄러운 음악보다 감성적인 음악이 듣기 좋은 것 같다(웃음)”며 “YB는 공연을 위한 음악이고 이번은 그냥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앨범에는 공동 타이틀곡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우사시)과 ‘빛소리’를 비롯해 총 다섯 곡이 담겼다. ‘우사시’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윤도현의 안정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진 록발라드 곡이고, ‘빛소리’는 밝은 멜로디와 목소리가 도드라지는 포크록이다.

그는 특히 1995년 발매된 자신의 데뷔 음반에 수록된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약 20년만에 리메이크했다. ‘이등병

의 편지’를 쓴 김현성의 곡이다. 악기를 최소화하고 그의 목소리를 강조해 보컬에 실린 감정이 선명하게 전달된다.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항상 가슴에 무언가 짝 차오르는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구절만 나오면 항상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언제인가 ‘양심수 석방의 밤’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나요. 가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록곡에는 여러 뮤지션이 피쳐링으로 힘을 보탤다. ‘빛소리’는 여성 듀오 옥상달빛이 함께했고,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는 가수 에스나가 참여했다. 앞서 선공개된 ‘요즘 내 모습’은 타블로와 케이윌의 피쳐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YB 안에서는 여자 후배들과 작업할 기회가 없다”며 “여성 후배들과의 작업을 통해 음악의 남성적인 면을 조금 빼고 싶었다. 조금 더 담담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내달 2~19일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의 쇼케이스 무대에서도 윤도현은 통기타를 둘러메고 직접 노래와 연주를 선보였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로큰롤 베이비’ 윤도현이지만 어느새 데뷔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포크로 시작해 밴드 음악을 거쳐 다시 포크로 돌아온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부분이 변했다고 느끼까.

“변하려고 해서 변한거보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자체도 젊었던 시절처럼 기차 화통같은 소리보다는 이제는 허스키하면서 표현력이 풍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미래의 제 모습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태티서’ 컴백, 두번째 미니앨범 ‘할라’(Holler)

“멤버들이 앨범에 많이 참여했어요. 수록곡 선택에도 의견이 많이 반영됐죠. 모든 곡이 다 뜻깊어요. 여러 분이 한 곡도 놓치지 않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결그룹 소녀시대의 유닛(소그룹) 태티서(태연, 티파니, 서현)가 두 번째 미니앨범 ‘할라’(Holler)로 돌아왔다.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앨범 쇼케이스에서 태티서 세 멤버는 “새 미니 앨범으로 팬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티파니는 “태티서는 그동안 뛰고 살았을까. 머리 색만 바꾸며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 아레나 투어를 하면서도 앨범을 열심히 준비했다. 많은 고민 끝에 최고의 노래만 골라서 나왔다”면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이라고 생각한다. 기다리게 해서 팬들께 미안하다(웃음)”며 미소지었다.

이날 정오 공개된 태티서의 ‘할라’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모두 여섯 곡이 담겼다. 이번 앨범 수록곡의 첫 무대로 ‘아드레날린’(Adrenaline) 공연이 펼쳐졌다. ‘아드레날린’은 빠른 박자감과 탄탄한 베이스 소리가 인상적인 발랄한 팝 스타일 노래다.

멤버들은 무대를 마치고 “(이 곡은) 안무에 특히 신경을 썼다. 연습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지금 (힘들어서) 땀이 막 땀나”며 미소지었다. 아드레날린에 이어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미니어 발라드곡 ‘우리 유’(Only U) 무대가 이어졌다. 멤버들의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이 노래는 서현이 직접 가사를 썼다.

이어 펼쳐진 선공개곡 ‘내가 네게’ 무대에서는 태티



〈왼쪽부터 서현·티파니·태연〉

서의 성숙미가 더욱 강조된 안무가 돋보였다. 웨이브와 굴반이 강조된 댄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멤버들도 “그동안 색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선보이지 못했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저희도 신선했다. 듣는 분들도 저희가 성숙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 선공개하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연의 마지막 무대로 타이틀곡 ‘할라’ 무대가 펼쳐지자 쇼케이스장의 환호는 절정에 치달았다.

“소녀시대가 워낙 비주얼 퍼포먼스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보컬 퍼포먼스를 강조해서 준비했어요. 계속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의 아이 콘이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